

저축 어록

부유해지고 싶다면
저축하는 습관부터 시작하라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2016 Winter Vol.8

SBI Special

세상을 바꾼 위대한 만남
만남의 또 다른 이름, 컬래버레이션

SBI Story

연탄 나눔 봉사활동
SBI저축은행 수원지점 탐방

SBI Life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데이트
명동 맛집도



희망+

SBI저축은행 웹진형 매거진
Winter 2016 Vol.8

<희망+>는 웹진과 함께 펴내는 SBI저축은행 계간 매거진입니다.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02호(2016. 1. 5)

발행일 2016년 1월 6일

발행인 나가무라 히데오,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빌딩 동관 9층

담당 SBI저축은행 홍보부 김원준 주임 Tel. 02-3416-6235

기획·편집·디자인 101디자인스튜디오 Tel. 02-548-5780

 <희망+> 웹진
<http://sbiwebzine.co.kr>



표지모델
SBI저축은행 인사부 김지윤 사원

SBI Special

- 04 **테마 인트로**
만남
- 06 **테마 스토리**
세상을 바꾼 위대한 만남
: 이성계 & 정도전
: 폴 매카트니 & 존 레논
- 10 **테마 돋보기**
만남이 낳은 새로운 가치, Collaboration
- 14 **테마 토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낸 만남
: 정보시스템실 문희범 대리 & 김동민 사원
SBI 소통은 주니어보드가 이끈다고 전해라
: SBI 주니어보드 '소통이끄미'

SBI Story

- 20 **SBI 포커스**
SBI저축은행 연탄 나눔 봉사활동
- 24 **SBI 희망뉴스**
2015년 4분기 주요 소식
- 28 **SBI 새 얼굴**
IB자산관리부 박창섭 부장 외
- 32 **부서 탐방**
SBI저축은행 수원지점
- 36 **힐링 타임**
2016 새해 소망 담은 캘리그라피 체험
- 40 **직장생활 솔루션**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SBI Life

- 44 **달콤한 나의 가족**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데이트
: 준법감시부 정종덕 대리 부부
: 채권관리부 최지민 주임 부부
- 48 **추천! 핫 플레이스**
대한민국 식도락 1번지, 명동
- 50 **계절 밥상**
겨울 바다의 진미, 굴
- 52 **비바 걸치**
테마가 있는 문화정보
- 55 **열린 편집실**
다른 그림 찾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 생애 최고의 '인연'을 위하여

엄마가 아빠를 안 만났으면 오늘 나는 없습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이 안 만났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요?

만남은 늘 새롭습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은 우리 가슴을 들뜨게 합니다.

어떤 이들의 만남은 시대와 역사를 바꾸고,

어떤 이들의 만남은 불멸의 예술작품을 낳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만남은 언제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생애 최고의 만남이 찾아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몽룡을 만난 춘향이처럼 반가워하세요.

해리를 만난 샬리처럼 뜨겁게 포옹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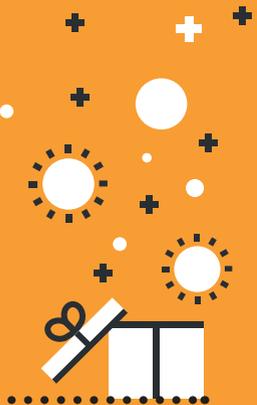
서로 힘을 더해,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상에 놀라운 역사와 감동을 선물한 만남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꿈꾼 이성계와 정도전, 애증의 관계였지만 그 힘으로 불멸의 음악을 남긴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이들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만남'이 낳은 새로운 가치, 컬래버레이션

짜파게티와 너구리, 아이언맨과 헐크, 명품과 예술가들이 만나 융합하고 합체하는 '컬래버레이션' 전성시대입니다. 학교와 기업은 저마다 '통섭형 인재'를 부르짖고, 가요 차트 상위권은 '피처링'이 필수입니다. 마케팅, 문화, 예술……. 아! 때는 바이흐로 컬래버레이션 전성시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시너지!

SBI저축은행에 판타스틱 듀오가 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어느덧 1년. 사내 멘토링 제도 '희망이끄미'를 통해 운영처럼 단짝이 된 정보시스템 실 문휘범 대리와 김동민 사원의 이야기가 펼쳐 집니다. SBI저축은행 내부의 만남과 소통의 장 '주니어보드' 활동 이야기도 곁들여 드립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만남

역사는 '만남'의 연속이다. 어제의 만남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 그 숱한 만남들 가운데는 가슴 벅찬 만남도 있고, 가슴 저린 만남도 있다. 서로 도움을 준 만남도 있고,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었을 만남도 있다. 이런 만남들이 씨 줄과 날줄처럼 엮여 큰 틀을 짜내는 것이 바로 역사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만남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정도전이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실행한 첫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땅'이었다. 고려왕조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무효화하고 공포한 새로운 토지 제도가 조선 개국 직전 해에 반포된 '과전법'이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 법을 쌍수 들어 환영했고, 농민의 지지는 새 왕조의 개창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불패의 영웅에서 권력의 정점으로, 이성계

활숨씨가 특히 뛰어났던 이성계는 젊은 시절부터 20년 넘게 북쪽과 남쪽을 오르내리며 홍건적, 원나라, 왜구와의 전투를 모조리 승리로 이끌었다. 이성계는 백성들 사이에서 '불패의 사나이', '난세를 구원할 영웅'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다.

'머리'와 '힘'이 만나다

“나, 이성계요.” “삼봉 정도전이라 하옵니다.”

드라마 <정도전> 또는 <육룡이 나르샤>에서 봤음직한 바로 이 장면! 1383년 가을, 마침내 정도전^{1342~1398}이 이성계^{1335~1408}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다.

공민왕이 암살당한 뒤 관직에서 쫓겨나 8년이 넘도록 정치 낭인으로 떠돌던 정도전은 어느 날 마음을 굳힌다.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마흔두 살 되던 해인 1383년, 정도전은 '귀인'을 찾아 동북방으로 떠난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최영이나 이인임 같은 개경의 유력자를 찾아갔겠지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여진족들이 사는 지역, 이성계의 군영이 있는 함경도 함주였다.

처음 만난 이성계에게 정도전은 대뜸 “참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이성계는 “거, 무슨 말이오?”라고 되묻는다. 정도전은 짐짓 “이 정도면 동남방의 근심인 왜구를 물리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라며 말을 돌린다. 그러고는 군영 앞 늪은 소나무 꺾질을 벗겨내 시 한 수를 남긴다.

아득한 세월 걸던 한 그루 저 소나무(蒼茫歲月一株松)
첩첩 깊은 청산에서 잘도 자랐구나(生長靑山幾萬重)
언젠가 훗날 다시 만날 수 있을까(好在他年相見否)
인생살이 돌아보면 어느새 묵은 자취인 것을(人間俯仰更癡踪)

이성계의 호는 송헌(松軒)으로, 굳건하게 자란 소나무는 이성계를 뜻한다. 어렵사리 함주 군막을 찾아간 정도전은 훗날 이성계와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를 지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일이란 변화무쌍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정도전은 이 만남이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하고 한낱 과거의 자취가 되지 않을까 가슴이 먹먹했던 것이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날의 결정적 만남을 통해 9년 뒤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한쪽은 머리밖에 없고 한쪽은 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혼자 힘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이웃사이더 사이에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어 보자는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 이성계와 정도전, 둘의 만남은 가히 '물과 고기의 만남'이었다.

존중과 경쟁의 시너지

1957년 7월 6일,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작은 항구도시 리버풀에 있는 한 교회의 가든파티. 행사의 일부분으로 펼쳐진 공연에 퀴리먼(The Quarry Men)이라는 밴드가 무대에 섰다. 이 밴드의 리더는 당시 16세였던 존 레논^{1940~1980}이었다. 어설피고 낮은 이들의 로큰롤 음악은 파티에 온 어른들에게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연 내내 비범한 음악적 열정을 내뿜는 존 레논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15세의 폴 매카트니^{1942~}였다.

폴과 존은 모두 10대 중반이었을 때 어머니를 잃는 동병상련을 겪었다. 이 같은 공통의 경험은 둘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밴드의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비틀즈의 마지막까지 두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폴이 작곡했든 존이 작곡했든 모든 곡을 '레논-매카트니' 또는 '매카트니-레논'이라 표기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공감대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공동 작곡'이라는 틀 안에서 존과 폴은 완벽한 경쟁자이자 조력자였다.

애증이 낳은 명곡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이 추구하는 음악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앨범을 낼 때마다 반복도 커져만 갔다. 사실 두 사람은 비틀즈라는 공통분모를 찾기 전까지 어머니를 잃었다는 공통점을 빼면 너무나도 다른 과거를 살았다. 애초에 둘은 모든 면에서 달랐다. 가정환경, 추구하는 음악, 말투와 성격까지, 한마디로 '극과 극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폴 매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대표곡 'Yesterday'는 이별한 연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 레논이 모든 걸 잃었을 미래를 상상하며 쓴 곡이라고 한다. 'Silly Love Songs'도 마찬가지다. 존 레논이 가장 싫어했다는 '사랑해'라는 말을 무려 40번이나 넣어 존을 비아냥거렸다. 이에 질세라 존 레논은 'How Do You Sleep'이란 노래로 폴을 비난했다. 그 뒤에 둘은 서로를 '양과 돼지'에 빗대며 냉소를 주고받았다.

비틀즈가 전설이 되기까지, 과연 둘 중 어떤 천재의 힘이 컸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기 쉽지 않다. 폴 없는 비틀즈, 존이 없는 비틀즈는 그 어느 쪽이든 상상하기 어렵다. '애증'의 관계란 바로 폴과 존을 두고 한 말은 아닐까? 상대의 약점을 두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의지했고, 또 그것이 아름답고도 위대한 성공의 원동력이 됐으니 말이다.

대중의 품에 안긴 유연한 천재, 폴 매카트니

간호사 어머니와 음악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폴 매카트니는 유복하진 않았지만 비교적 평탄한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폴은 재즈악단 리더로 활동한 아버지로부터 트럼펫, 피아노 연주법을 익혔다. 영문학을 좋아했던 소년은 중 고교 시절 글짓기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음악이었다.



예술의 품에 안긴 고독한 평화주의자, 존 레논

존 레논은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 리버풀의 벳사람이었던 아버지는 존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집을 떠났다. 그리고 존이 네 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 줄리아는 존 레논을 언니한테 맡겼다. 방향과 갈등으로 유년을 보낸 불량소년은 음악으로 자신을 치유했고, 뮤지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만나 '짜파구리'라는 새로운 맛이 탄생했다. 20대 가수 아이유가 60대 김장완과 만나 함께 부른 노래는 차트를 휩쓸었고, 뽀빠이 활동하던 영웅들이 한 영화에 모여 '협업'을 했더니 위기에 빠진 지구에 평화가 돌아왔다. 이쯤 되면 눈치 채셨는가? 때는 바야흐로 콜라베이션 전성시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콜라베이션'은 두 가지 이상이 모여 더 나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협력, 협업, 공동연출, 피칭링, 듀엣 등 모든 종류의 '만남'이 바로 콜라베이션에 해당한다. 주로 패션계에서 디자이너 너들끼리 하는 공동작업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음악, 미술 같은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경영 수단의 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가 서로 손잡고 장점을 극대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은 제품과 유명인이 협업해 한정판을 내놓고 반짝 매출을 올리던 도입 초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기획, 출시, 매장 디자인, 전시회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협업하는 토탈 콜라베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다.

브랜드와 예술의 콜라베이션인 '아트 마케팅'은 광고에 예술을 융합시킨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전략이다. 시, 소설, 영화, 회화,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패러디하거나 차용한다. 반대로 팝아트와 같은 대중예술이 자신의 작품 속에 광고의 전체 또는 일부를 모사하기도 한다. '아트 마케팅'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끌림'을 이끌어 내는 것.

한정판 마케팅을 잘 활용하기로 유명한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와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스페셜 에디션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이 1962년 코카콜라 병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해 아트 마케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최근에는 해마다 유럽에서 '핫한' 아티스트를 선정해 콜라베이션 코카콜라를 출시하고 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를 비롯, 장 폴 고티에, 켈조 다카다, 로베르토 카발리 등 이름난 패션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코카콜라가 예술품으로 탄생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은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을 했다. 세계인들이 사랑한 광고 캠페인과 캐릭터를 엄선해 10개의 패키지에 담은 스페셜 한정판, '100년의 헤리티지 에디션'을 선보였다.

참을 수 없는 한정판의 유혹

작년 11월 5일, 스웨덴의 SPA 브랜드 H&M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망이 협업해 한정판으로 만든 제품이 전 세계 250개 매장에서 일제히 판매되었다. 출시 전부터 세계 곳곳의 매장 앞에는 밤을 새는 소비자들이 줄을 이었고, 우리나라 명동 매장에도 수십 명의 고객들이 일주일 전부터 방한용품과 의자, 담요, 피자 수십 판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값비싼 발망을 저렴한 가격에 '한정판'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일본의 SPA 브랜드 유니클로 역시 콜라베이션의 전문가로 손꼽을 만하다. '베이직'이라는 패



션 콘셉트로 대중을 사로잡은 유니클로는 스스로 흰 도화지가 되어 여러 아티스트들이 그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유명 셀러브리티와 협업을 하거나 디즈니를 비롯한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티셔츠 위에 그려 넣어 소장용 아이템으로 만드는가 하면 뉴욕현대미술관과의 콜라베이션으로 앤디워홀, 바스키아, 잭슨 폴록 등 세계적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그들의 아이템 속에 담기도 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질 샌더와 작업한 컬렉션은 패션 콜라베이션 중 최고의 작품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명품도 예외는 아니야

루이비통의 꾸준한 성장 비결은 오랜 역사와 높은 품질 외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아티스트와의 콜라베이션을 손꼽는다. 루이비통의 콜라베이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크 제이콥스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루이비통에 영입된 마크 제이콥스는 미술가들과의 콜라베이션 작업을 통해 다소 고루하고 보수적이던 루이비통에 젊고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했다. 2003년, 무라카미 다카시와의 콜라베이션인 '멀티 컬러 모노그램'은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아트와 패션'이 조화된 대표적인 콜라베이션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클래식하고 유틸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많은 마니아를 거느린 영국 브랜드 폴스미스도 독특한 콜라베이션 작품을 많이 남겼다. 특히 폴스미스는 아티스트가 아닌 의외의 분야와 결합해 눈길을

끌었다. 폴스미스 특유의 줄무늬로 현란하게 장식된 미니쿠퍼가 1997년 도쿄 모터쇼에서 공개되었는데, 폴스미스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이 차 곳곳에 반영되어 영국식 패션과 자동차의 크로스오버를 상징하는 걸작이 되었다.

양적 팽창보다 '궁합'이 중요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최근의 콜라베이션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예술과 상업 간 소통의 폭을 넓히기 때문이다. 모든 콜라베이션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질적인 것의 결합을 통해 원래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은 사뭇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생각지 못한 만남을 통해 일상에 전해주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무척 반갑고 설렌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콜라베이션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힘을 합친다고 해서 시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흩어져야 사는 경우도 종종 있는 법. 훌륭한 콜라베이션은 양적 팽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시너지를 내려면 둘의 궁합이 어떤지 기능해봐야 한다. 확연히 다른 이종결합이 만드는 창조적 파괴나 혁신 에너지를 기대하며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분명한 건 사람과 사람이든, 기업과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할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낼 때 만남은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젊음과 자유, 반스

1966년 시작된 신발 브랜드 반스는 젊은 문화 세대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대변한다. 무난한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신발을 만들어 온 반스는 콜라베이션의 유행을 가장 잘 이용한 브랜드 가운데 하나다. 특히 파트너 선정이 탁월하다. 스타워즈, 비틀즈, 겐조, 칼 하트 등 젊음과 자유를 표방하는 문화 아이콘과 결합해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을 신발 위에 새겨 넣었다.



최고의 인기 파트너, 디즈니

수많은 기업들이 콜라베이션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현재의 어린이'와 '과거의 어린이' 모두의 친구 디즈니 캐릭터다. 패션, 화장품, 문화 예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기업에서 자신들과 함께 할 콜라베이션 파트너로 디즈니를 러브콜했다. 디즈니 만화에 대한 범세계적인 향수와 친근함이 바로 디즈니 캐릭터들의 엄청난 매력이자 무기이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에코 브랜드로, 키엘

키엘은 뉴욕에서 약국으로 시작해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초기 다소 딱딱한 약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키엘은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특히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콜라베이션을 통한 작품과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스토리텔링의 성공, 현대카드

2003년만 해도 시장에서 마이너에 불과하던 현대카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른 비결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 데 있다. "무슨 카드 회사가 이런 것도 해?"'라고 되물을 만한 '빨'도 서슴지 않는다. 뉴욕현대미술관과 손을 잡기도 하고, 아이돌 그룹 박재광 공연을 하며, 마리아 사라포바와 윌리엄 비너스의 테니스 경기와 같은 '세기의 대결'을 기획한다. 그러면서 "카드 회사가 별걸 다하네"라는 현대카드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낸 만남

정보시스템실
문휘범 대리 & 김동민 사원

지난 한 해 SBI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만남'은 사내 주니어보드 운영, 멘토 멘티 제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약 1년 동안 멘토와 멘티로서 이제는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한 직원들이 이루어내는 시너지는 팀워크와 업무 능률을 넓히며 사내 희망이끄미로 자리 잡고 있다. 그 특별한 만남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이심전심(以心傳心), 특별한 만남

지난해 1월 1일 대졸 공채 23기로 입사한 김동민 사원은 3월 부서 배정과 함께 멘토링 '희망이끄미'를 통해 멘토 문휘범 대리와의 첫 만남을 했다. 멘토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젠뜰했다'고 표현한 김동민 사원은 막내로서의 본분을 거의 문휘범 대리에게서 배웠다. 막내 생활만 거의 5년 동안이나 해온 문휘범 대리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사실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사내 분위기를 익히고 적응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 모로 제가 도움을 얻은 면이 많습니다. 몸에 밴 습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 저절로 업무에도 금

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휘범 대리는 자신의 멘티인 김동민 사원을 “착실한 청년”이라고 표현했다. 각뚝하고 반듯한 이미지 덕분에 정보시스템실 안에서 금방 녹아들었다. 여신서비스팀 소속인 문휘범 대리가 채널서비스팀 소속인 김동민 사원과 다양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진심 어린 '마음'이 통했다는 방증이다.

마음으로 통(通)하고 의지하다

두 사람은 단지 어딘가 보고하기 위한 멘토링 활동이 아닌 진심과 애정을 밑바탕으로 다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담당

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함께 반차를 내고 야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떡 만들기 체험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져갔다.

“사회 초년생이 되면 그동안 학부에서 배웠던 것과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인 듯싶습니다. 멘티가 지금처럼 성장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멘티를 바라보는 문휘범 대리의 눈빛에서 따뜻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2016년 새해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는 물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배부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두 사람에게서 작은 만남이 가져다준 소중한 시너지를 보았다. 그 따뜻한 힘이 울겨울을 지켜내고 있었다.

문휘범 대리

김동민 사원

SBI 소통은 주니어보드가 이끈다고 전해라

SBI 주니어보드 '소통이끄미'

'만남'이 주는 시너지를 더욱 커다란 청사진으로 그려내기 위해 뭉친 이들이 있다. SBI저축은행 전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탄생한 주니어보드가 바로 그 주인공들. 지난 6월 처음 만난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소통하며 교류해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SBI저축은행의 사내 소통과 화합의 실마리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소통'을 위해 만남 사람들

약자지결한 회의실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반가운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간혹 박수와 함성도 터져 나왔다. 반년째를 맞는 SBI 주니어보드 정기회의가 있던 지난 12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주고 받은 이야기는 주니어보드의 탄생 배경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목표는 간단하다. '자유로운 소통'으로 활발한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것.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들이 경영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체가 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서로의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 주니어보드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태 과장이 전하듯 실제 주니어보드의 운영회의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마치 회사 옆 카페 혹은 퇴근 후 호프집에서 갖는 친목 모임과도 같은 느낌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정기 회의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평소에도 네이버 밴드 활동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매달 생일을 맞은 구성원들을 따로 챙기는 것은 물론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경영 이슈, 제도 시행 등에 대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니어보드 정기회의에서는 실제로 지난 10월 나카무라 히데오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구성원들이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결과로 CEO 메시지를 통해 경영지표를 공유하고 신년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사내 열린 경영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소통이 시작’이라는 주니어보드 전체 모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특히 직원들의 고충 사안과 자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물이 바로 얼마 전 문을 연 사내 게시판이다.



2016 신년 다이어리



주니어보드 구성원 & 역할

선임위원 김덕선 과장(심사부)
부선임위원 류승원 대리(부동산금융부)
서기 문연주 대리(감사실)
홍보
김준태 과장(총무부), 황천수 대리(BI부), 주형석 대리(정보시스템실), 권다름 주임(명동 지점)
기획
김수정 과장(목동지점), 안소영 대리(여신영업1부), 이훈 주임(리테일영업3부), 이원재 주임(재무경영리부)

“봐요 봐요,
저요 저요, 끔찍 끔찍!”

게시판 세 곳 가운데 특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은 다름아닌 “저요 저요, 할 말 있어요” 게시판. 작은 의견일지라도 이를 경영진에게 하나하나 전달하여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게시판에서 활발히 활동하거나 유익한 의견을 낸 작성자에게는 다양한 기준을 정해 소정의 상품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누구라도 사내 진정한 소통의 장(場)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훈 주임이 전하듯 주니어보드가 2016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SBI저축은행 전 직원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아름다운 만남이 전하는 감동, 그 눈부신 결실을 위해 오늘도 이들은 열심히 귀 기울인다.

SBI Story



희망을 노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깊어가는 情**
SBI저축은행 연탄 나눔 봉사활동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다. 차디찬 마음을 누군가 감싸 안아준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싶어지는 계절, 누구보다 그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SBI저축은행이 사랑의 마음을 건넸다. 결식아동, 조손 가정, 한부모가족 등 홀로 외롭게 추위를 버텨내야 하는 가정마다 연탄을 비롯한 이불, 쌀, 보온매트 등이 배달됐다. 뜨거운 정과 소중한 마음이 듬뿍 담긴 현장을 함께했다.



“희망, 다 같이 나누러 왔어요.”

지난 11월 24일, 첫눈이 올 것만 같던 흐린 맹추위를 뚫고 중구 신당동 일대에 SBI 저축은행 임직원 100여 명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우리 사회 ‘희망 나눔이’로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SBI저축은행은 이미 한참 전부터 SNS다함께정기정금을 통해 가입 1계좌당 연탄 한 장씩을 적립해 누적 8천여 장을 넘어섰다. 일본 본사에서 이미 SBI어린이희망재단을 통해 학대아동 지원을 돕고 있는 만큼 그 지원계층을 더욱 넓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심기일전한 직원들은 물론, 임진구 대표이사 역시 직접 손수레를 끌고 일렬로 연탄을 나르는 등 심 없이 부지런한 일꾼으로 두 시간여 동안 바쁘게 움직였다.

뜨거운 마음, 실천으로 불태우다

‘아직도’ 연탄을 쓰는 가정이 있나 싶지만, 여전히 연탄 한 장이 ‘절실한’ 이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었다. 손수레가 지나지 못할 정도로 좁고 가파른 오르막을 앞에 두고 “서울에 아직 이런 동네가 남아있는 줄 미처 몰랐다”는 오토론TFT 유재준 부장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반성도 들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함께하고 나니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며 연탄 네 장을 동시에 나르는 열의를 보였다. 전라기획부 유준모 부장 역시 3년 전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연탄을 날랐다. “대표님과 함께 여러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한 그는 같은 부서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연탄 천장 사두는 게 꿈”이던 시절

신당5동 지역 총 34개 가정을 돌며 연탄 총 1천 장을 포함,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보온매트와 이불, 쌀 등 총 3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 물품과 성금을 전달한 SBI 희망봉사단은 오후 3시 무렵부터 연탄을 나르기 시작해 두 손이 다 시꺼메질 때까지 추위도 잊은 채 분주했다. 그중 가장 많은 연탄이 필요했던 곳은 홀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던 어르신 택이었다. 부인과 사별하고 대장암 수술을 두 번이나 치르면서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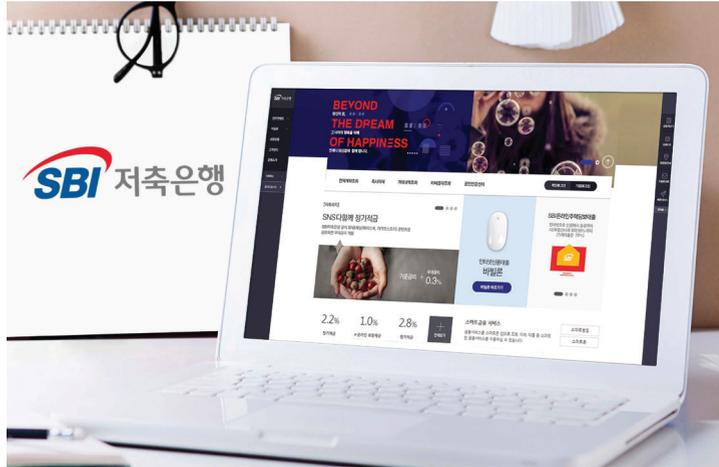
는 두 귀마저 잘 들리지 않지만,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 서서 연탄을 나른 김선규(60) 할아버지는 “예전에 나도 연탄 가득한 수레를 끌고 1년 반 동안 돈을 벌어 집 한 채를 샀었다”며 “하루 너 장이면 거뜬히 겨울을 난다”면서 차곡차곡 채워지는 연탄에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희망, 내일을 보다

연탄 1,000장을 모두 나르고도 각 가정을 돌며 쌀, 이불 등 모든 물품을 전달한 임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남은 것은 무언가를 이루고 닳을 때의 기분 좋은 감정 그 이상이었다. 연탄이 지나간 한 자리에 수줍게 놓여있던 음료수 한 상자가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것만큼이나 값진 것은 베푸는 사랑과 나눔의 미덕이 남기고 간 깊고 깊은 마음이었다. 채권관리본부 임용복 본부장은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베풀면서, 더 나아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로 살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나”라며 직원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당부했다. 실제로 새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SBI저축은행은 업계 1위답게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어두운 저녁 무렵에야 처음 장소로 함께 모인 직원들에게 임진구 대표이사는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날이 참 좋아 무엇보다 다행”이었다고 운을 뗀 뒤 “같이 일하면서 보니 우리 직원들이 새삼 달리 보였다”며 “이것이 팀워크”이자 “우리 사회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차곡차곡 채워진 연탄 한 장마다 가득 담긴 희망의 빛이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오후였다.





홈페이지 리뉴얼

SBI저축은행 홈페이지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착수·개발·테스트를 과정을 거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사 및 브랜드,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 사이트 등 13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비대면 채널 사이트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기존의 틀을 깬 메뉴 배치 등 혁신적인 사용자 환경을 조성해 신뢰도와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한층 강화된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도입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 보안 솔루션인 SSL(Secure Sockets Layer) 방식의 보안서버를 구축해 파밍과 같은 해킹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배포관리솔루션, 그리드툴의 방식을 액티브엑스(Active-X)에서 스크립트 방식으로 바꿔 보안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중저금리 대출 <사이다> 출시

SBI저축은행이 지난 12월 21일 모바일중저금리 대출상품 <사이다>를 출시했습니다. 시중은행 고객과 은행 대출거절 고객은 물론, 고금리 카드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대출상품 <사이다>를 통해 국내 중저금리 시장 선권에 나섭니다.

모바일중저금리 대출상품 <사이다>는 대출금리가 신용등급 1등급 6.9%에서부터 2등급 연 8.0%, 3등급 연 9.0%, 4등급 연 10.0%, 5등급 연 12.0%, 6등급 연 13.5%까지이며, 대출한도는 국내 모바일 전용 대출상품 가운데 가장 큰 3천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60개월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대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www.saidabanking.com)만 간단히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무방문, 무서류로 당일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사이다>는 이 같은 특징점을 바탕으로 출시 열흘 만에 25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루어지며, 동일 기간 시중은행 모바일뱅크 대출실적의 두 배를 웃도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창립기념식 & 올해의 SBI인 시상

지난 11월 2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SBI저축은행 창립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카무라 히데오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 '올해의 SBI인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SBI인 시상'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SBI 임직원 가운데 세 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수상의 영광은 리테일영업1부 송민호 부장, IB2부 임대희 부장, 채권관리부 김주현 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원지점 오픈

지난 11월 3일 영업력 강화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수내지점을 수원지점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지점은 시청, 대규모 주거단지,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화의전당 등 행정·상업·문화 시설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오픈과 함께 예금·적금 특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수원지점은 지역 일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금융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계 최초 '2015 웨어워드 코리아' 금융부문 특별대상 수상

SBI저축은행이 최근 리뉴얼을 마친 홈페이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17일 업계 최초로 '2015 웨어워드 코리아'에서 금융부문 특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SBI저축은행은 스마트 금융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저축은행으로 다시 한 번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웨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모바일 전문가와 교수 2천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온라인 심사에 따라 디자인, UI,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획득

SBI저축은행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5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에서 업계 최초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SBI저축은행은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임직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LPGA 허윤경·정연주 선수 2년 후원 계약

SBI저축은행이 프로골퍼 허윤경·정연주 선수와 2년 후원 계약을 맺고 2016 시즌부터 두 선수로 구성된 골프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우수한 성적과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한 기업금융 마케팅의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허윤경 선수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12년부터 여섯 시즌 연속 SBI저축은행 마스코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으며, 2011년 KLPGA 신인상 출신이자 JLPGA 우승 경력이 있는 정연주 선수는 SBI저축은행과 첫 인연을 맺으며 국내 무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2015 송년의 밤

지난 12월 30일 SBI저축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2015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서로 보듬어 안고, 다가오는 2016년을 힘차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나카무라 히데오 대표이사의 송년사, 신입행원 및 신입텔러 소개, 임직원 장기자랑, 동영상 시청,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은 지나간 2015년을 되돌아보고 2016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근두근, 첫 만남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000!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는 각오가 더욱 남다를 SBI저축은행 신규 직원들 역시 새로운 한 해를 맞느라 분주하다. 자신들과 SBI저축은행의 만남을 각각 한마디로 정의하는 이들에게서 올 한 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 차례로 만나보자.

SBI저축은행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신규 직원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 군기가 바짝 든 신입사원부터, 제법 연륜이 깊어 보이는 경력 직원까지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점을 SBI저축은행에서 열게 된 이들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자체가 바로 새 '희망' 아닐까?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설렘]

인생의 두 번째 직장, 새로운 떨림
IB자산관리부 박창섭 부장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6번 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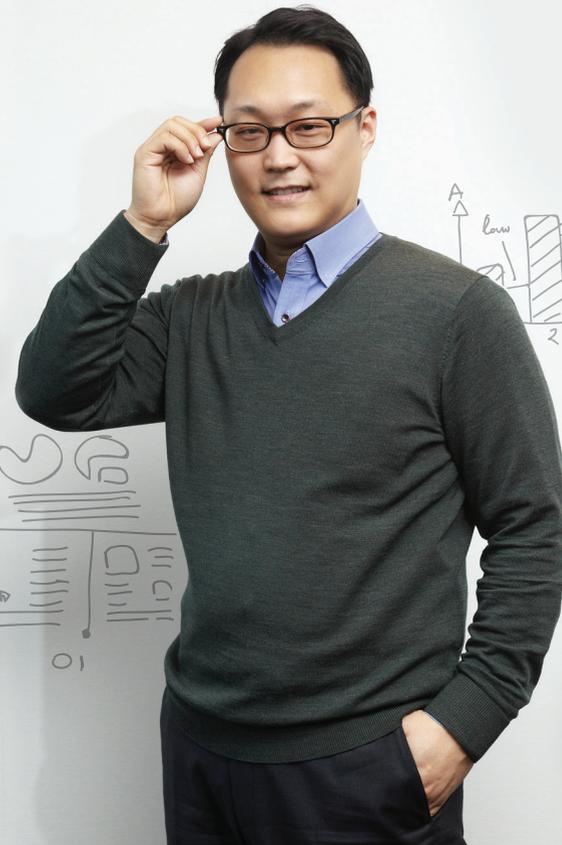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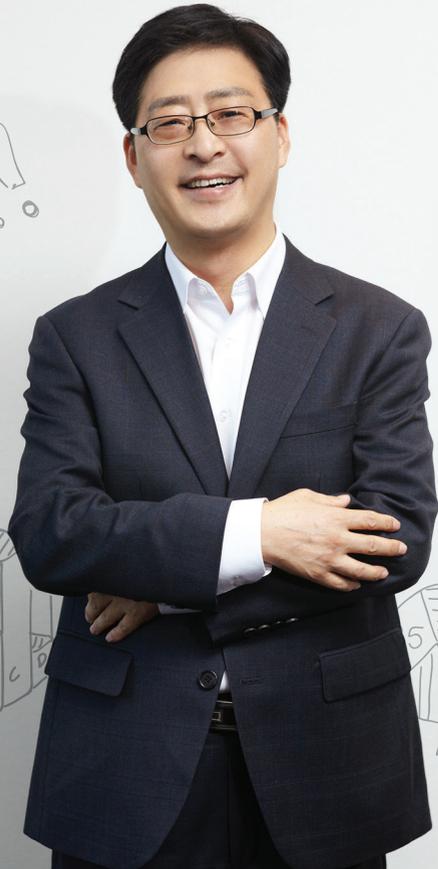
클린업트리오 뒤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잡는 타자
오토론TFT 김정현 과장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필연]

최선을 다해 최고로 보답
리테일콜렉션부 양익준 팀장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유혹]

성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
오토론TFT 이광표 주임



열정 가득, 새 각오

제각기 다채로운 목표와 각오를 안고 SBI저축은행의 새 식구가 된 이들. 제2의 인생을 여는 터닝포인트,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발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이룰 꿈을 무궁무진해 보였다. 이곳에서 각자 함께 이룰 목표는 SBI저축은행이 나아갈 전체 목표와 다름없다. 그 한가운데 우뚝 선 희망의 보금자리가 바로 여기였다.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딸바보]

가족만큼 가까운, 가족처럼 사랑스러운
총무부 정호영 대리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친구]

서로 무한 도움을 주고받으니까요.
리테일영업2부 김설 사원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금메달]

유래, 통래, 상래!
총무부 장윤준 사원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운명]

올 수밖에 없었고, 꼭 왔어야 하는 곳
전략기획부 김희은 사원

SBI저축은행과의 만남은 [잘 끼운 첫 단추]

쉽진 않았지만, 제대로 찾은 내 첫 직장
인사부 김지윤 사원



파릇파릇, 새 희망

새로운 생각을 품고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하나 가득 꿈을 안은 이들이 저마다의 희망을 품고 SBI저축은행에서 만났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직원들의 꿈과 각오는 2016년을 각자 한 걸음 도약하는 열정의 한해, 스스로 도전하는 진취적인 한 해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SBI저축은행의 새 등지에 한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새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BI저축은행 수원지점

지난 11월 3일, SBI저축은행 수원지점이 경기도권 영업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수원시청 옆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한 SBI저축은행 수원지점을 찾아가 2016년 새해를 맞는 당찬 각오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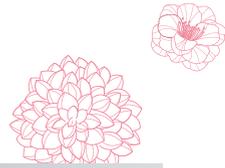
‘SBI의 꽃’들이 모였다

12월 중순, 지점 업무가 끝난 4시를 훌쩍 넘긴 시각에도 SBI저축은행 수원지점 직원들은 고객들을 마주하느라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 속에 수원지점을 찾은 고객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세심하게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느라 어느덧 바깥은 어두컴컴해졌다. 6시가 한참 지나서야 마지막 고객까지 모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뒤, 그때부터 수원지점의 본격적인 업무는 다시 시작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고 없이 야근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언제 어떤 고객이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수원에서 새롭게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희 지점을 찾아주시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정말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박지은 사원, 서연선 사원, 류연지 주임, 박혜미 사원, 윤지은 사원, 맨 아래 홍연경 지점장



이곳 수원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항상 묻는 이야기가 있다. 다름 아닌 SBI저축은행은 '외모'로 직원들을 뽑느냐는 것. 지점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이 모두 여직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 자리에 다들 모이니 생글생글한 미소와 환한 웃음이 가득해 저절로 꽃밭에 온 듯했다. 그중에서도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팔방미인'이라 자랑하는 홍연경 지점장은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으로 수원지점을 이끌고 있다.

수원의 새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첫 문을 연 수원지점은 분당 수내동에서 2004년부터 10여 년간 영업해오던 중 더욱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시청 가까이에 새 동지를 틀었다. SBI저축은행 영업력 강화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원지점, 이곳이 더욱 빛나는 까닭은 어떤 고객이든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분이다.

수원지점으로 옮기면서 지점 전경이나 인테리어도 활기차게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 마음가짐이 더욱 새로워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열정도 더욱 커진 덕분에 수원지점을 찾는 고객들은 처음에는 직원들의 화사한 미소에, 두 번째는 친절하고도 정확한 업무 처리에 감동한다.

"아무래도 여직원들끼리 갖는 유대감이나 공감이 소통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도 서로 다양한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임신한 류연지 주임의 아기 태명이 '만두'인데, 요새 한창 만두 이야기에 정신이 없어요."

이렇듯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인생 선배처럼, 수원지점 식구들은 서로 끈끈한 관계를 자랑한다. 수원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저축은행이 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2016년 따스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Mini Interview

수원지점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2016년 각오



홍연경
지점장

"2015년 지점 이전 등 여러 이슈로 조금은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활짝 펴고 여수신 영업에 집중해 2016년에는 저희 수원지점을 1등 점포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던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는 물론 튼튼한 체력을 키워 수원지점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류연지
주임

"2016년에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미뤘었던 자격증도 취득하고, 영어공부, 운동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배 속에 있는 예쁜 우리 만두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서연선
사원

"회사생활을 하며 따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2016년에는 꼭 틈틈이 시간을 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저희 수원지점은 물론 SBI저축은행 전 부서와 지점에서 하시는 일 모두 잘되기를 응원합니다."



윤지은
사원

"수원에서 새로운 고객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기대감도 높고 많이 설레기도 합니다. 스스로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2016년 새해는 현재보다 더욱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을 갖고 싶습니다."



박혜미
사원

"이번 2016년에는 꼭 계획한 대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365일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꾸준히 책 읽는 습관을 들여 더욱 자신감 있게 고객님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박지은
사원

"2016년 SBI인으로서 맞는 첫해인 만큼, 항상 열정을 품은 신입의 자세로 수원지점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삼고 저 역시 선배님들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원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님들께 힘과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손글씨로 전하는 '예쁜 마음'

2016 새해 소망 담은 캘리그래피 체험

새하얀 종이를 앞에 두면 누구나 마음이 차분해진다. 새로운 기대에 들뜨기도 하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해진다. 2016년 새해를 예쁘게 채워나가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인 네 사람이 손글씨를 통해 모처럼 힐링을 만끽한 현장을 찾아가봤다.



정갈한 붓에 담긴
아름다운 마법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붓과 종이, 베틀과 묵이 네 가지가 모여 만들어내는 서예에서 시작했다. 단순히 '예쁜 글씨'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낸 아름다운 글씨가 바로 '캘리(calli: 아름다운)-그래피(graphy: 글씨)'인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손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힐링'하기 위해 SBI저축은행 네 사람이 국내 최고의 캘리그래피스트로 손꼽히는 이상현 작가의 홍대 작업실을 찾았다.

"회사 업무로 바쁘지만 그럴수록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예쁘게 글씨를 써서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해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고 싶어요."

김수정 과장(목동지점)은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지난 6월부터 활동 중인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열심히 한 획마다 정성을 다했다. 김예진 주임(오토론)과 곧 출산을 앞둔 예비맘 최윤정 대리(리테일영업2부), 이연주 주임(인천지점)도 힘든 몸을 잠시 내려놓고 '캘리 태교'에 집중했다. 오늘 일일 체험 선생으로 나선 이상현 캘리그래피스트는 캘리 초보자들의 이 같은 마음을 먼저 칭찬했다.

"글씨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을 내뱉고 나면 다시 담을 수 없듯, 글도 마찬가지로 한 자 한 자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좋은 글씨가 따라와요. 펜이 아니라 붓으로 먼저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쪽부터 이연주 주임, 김수정 과장, 최윤정 대리, 김예진 주임



한 글자마다
정성껏 담은 진심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글자마다 각자 메시지를 전할 상대를 향한 마음이 진하게 묻어났다. 이들이 함께한 캘리그래피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독특한 기법도, 화려한 테크닉도, 유려한 손재주도 아니었다. '마음으로 쓰는 글씨'만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힐링을 채워주었다. 초등학교 때 서예부를 지낸 김예진 주임은 어릴 적 배운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며 두 아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보였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좋았고,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힐링타임을 가져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얼른 제 작품을 보여주고 싶네요. 민진아, 민석아, 사랑한다!"

컴퓨터가 쏟아내는 딱딱한 활자체에 지친 현대인에게 직접 쓴 손글씨가 전하는 진심은 지켜보는 이마저 힐링되는 놀라운 마법이다. 한창 열풍인 컬러링북이나 출판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캘리그래피 역시 따뜻한 감성이 그리운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일 것이다. 점과 선이 모여 획을 이루듯 작업실 곳곳에 각자의 개성이 묻어난 글자 한 마디 한 마디가 예쁘게 살아 숨 쉬는 듯했다.

마음이 예비하는
시간

새해 봄이 되면 쌍둥이 엄마가 되는 최윤정 대리는 곧 태어날 사랑이, 축복이를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았다. 남편을 향한 애정도 가득했다. 줄곧 남편 이름을 연습 삼아 큼직하게 써내려가던 그녀는 가족을 향한 애정 어린 한 마디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작은 쪽지에 쓴 손글씨만으로도 감동이 전해지듯, 펜이 아닌 붓으로 선명하게 그은 한 획 한 획에 담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났다.

"두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는 게 우선 2016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처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무척 기쁘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직접 쓴 결과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간직할 수 있어 정말 보람입니다."

또다른 예비맘 이연주 주임은 지난해 5월 결혼해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는 중이라 한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성함을 한 자 한 자 차분히 적어내려가는 한편, 곧 출산 휴가로 잠시 인천지점을 비우는 동안 동료들에게 남길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모두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며 직접 쓴 글씨가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동안 어느새 바깥은 어두워졌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한국 캘리그래피 시장의 개척자'라 할 만한 이상현 캘리그래피스트는 서예가 현대 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 캘리그래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우리 눈에 익은 '백세주', '우국생' 같은 제품 이름이나 '타짜', '해를 품은 달' 같은 영상 타이틀이 바로 그의 손에서 탄생된 작품이다.

작업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27
Tel: 02)3141-8894 www.simwha.kr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업무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억해 내려고 했으나 머릿속을 맴돌며 끝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웠던 경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두 번쯤은 겪어 본 일이다. 이는 처음부터 메모 습관이 없거나 메모를 했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메모는 '적자생존'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중요한 비즈니스 스킬이다.



일단 적기

길을 걷거나 밥을 먹다가, 또는 대화를 하는 도중 생각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대화 중이라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메모하는 것이 아이디어 자체를 잃는 것보다 낫다.

막 적기

메모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보면 그뿐,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예쁘게 꾸밀 필요도 격식을 갖춰야 할 까닭도 없다. 필요한 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메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잘 듣기

잘 적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대충 듣고, 멋대로 해석하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좋은 메모 습관의 가장 큰 적이다. 메모해야 할 팩트를 정확히 듣고 이해하고 사실에 맞게 기록해야 한다.



메모 습관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메모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스마트펜을 이용한 메모는 이제 새로운 것도 없고 음성 메모나 사진 메모 등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결합되어 나만의 독특한 메모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

컬러노트

최고의 다운로드 수를 자랑한다. 컬러로 메모 노트 분류 기능을 하며 달력, 캘린더를 통한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달력에 일기를 쓸 수 있으며 암호화 기능과 알람 기능도 있다. 사전 앱인 컬러딕트와 연동되어 있다.



OneNote

노트 및 점검 목록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전자 필기장, 섹션, 태그를 사용하여 노트를 구성할 수 있다. 노트에 필기 및 그리기를 추가할 수 있고 전자 필기장을 컴퓨터 혹은 기타 장치와 동기화할 수 있다.



자세히 적기

메모 내용을 너무 요약하거나 함축적으로 적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메모를 확인하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메모 내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적은 것 확인하기

메모는 습관화했지만 정기적으로 체크하지 않아 적어놓고도 아이디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메모지는 확인했을 때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특별한 일 없이도 규칙적으로 자신의 메모지를 확인해 버릇해야 한다.

가치 만들기

단순히 망각을 방지하려는 수단을 넘어 메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기록된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뱅크'가 된다.

머느리도 모르는 메모 비법

지금까지 소개한 것 외에 메모엔 마지막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은 바로 "비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유전자 깊숙이 각인시켜 놓듯 그저 꾸준히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한다. 메모에 대한 습관이 몸에 익게 되면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한 메모에서 창의적인 메모로 바뀌는 감동의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SBI Life



계획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네이버 메모



가나다 순 정렬이 가능하고 원하는 메모를 위젯으로 등록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단락을 제목으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수정 전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되돌리기 기능이 있으며 시원시원한 카드뷰도 제공한다.

숨노트



기본적인 메모 기능 외에 간단하게 그려서 노트에 첨부하는 스케치북 기능을 갖추었다. 뷰 모드 지원, 키워드로 찾는 빠른 검색 등이 가능하며 삭제된 노트를 복원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휴지통 기능도 장착했다.

귀여운메모장



문자 메시지처럼 신규 메모를 하나씩 추가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메모 앱과 차별성이 있다. 떠오르는 생각을 쉽게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메모의 주제에 따라 귀여운 아이콘과 바탕색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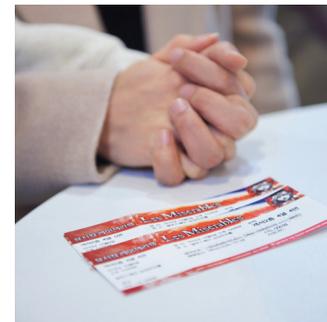
**달콤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데이트



한껏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마도 '가족'일 것이다. 늘 함께이지만 그래서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가족들에게 달콤한 시간을 선사해준 이번 <희망+> 겨울호 이벤트를 따라가 봤다.

30년 대작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다

12월 첫째 주, 한남동 공연장의 주말 풍경은 유독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커플들로 가득했다. 각각 아내 손을 꼭 붙잡고 블루스퀘어를 찾은 정종덕 대리(준법감시부)와 최지민 주임(채권관리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몇 년 전 영화로도 이미 한차례 돌풍을 일으켰던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 브로드웨이는 물론 런던, 일본 등 전 세계 44개국에서 무려 스무 개가 넘는 언어로 공연 중인 뮤지컬 대작이다. '브로드웨이월드 선정 최장수 흥행대작'에 걸맞게 오늘 두 부부가 마음속 깊이 담아갈 감동의 의미도 더욱 남다를 듯했다.



위대한 고전과 화려한 앙상블의 조화

지난 2012년 성공적인 한국 초연을 치르고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레미제라블>은 다섯 권에 이르는 원작의 방대한 이야기를 약 세 시간 만에 담아내기 위해 어느 작품보다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짜임새 있는 장면 전환에 공을 들였다. 특히 일반적인 사각 프레임 무대를 벗어나 좌우측 벽면을 따라 무대장치가 연속되는 '하나미치(花道)' 무대를 국내 최초로 선보여 관객 몰입도를 높였다. 10여 차례에 걸친 오디션을 거치며 배역과 99%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배우들만 모인 캐스트 가운데 오늘 무대에 오를 주인공은 2015 일본 <레미제라블>에서도 엄청난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 양준모(장발장)와 초연부터 함께해온 김우형(자베르), 조정은(판틴), 박지연(코제트) 등이다.



준법감시부

정종덕대리
유경은 부부 +

On My Own, 코제트의 순수한 사랑처럼

정종덕 대리 부부는 지난해 9월 19일 식을 올린 새내기 부부이다. 소개로 만났음에도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약 1년간의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정종덕 대리는 아내 유경은 씨를 자신에게 꼭 맞는 '이상형'이었다고 표현했다. "처음 보자마자 참 잘 맞다는 걸 느꼈어요. 딱히 서로 요구하지 않아도 크고 작은 부분들이 꼭 맞아 '이런 게 그동안 내가 그려왔던 이상형이구나' 했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점점 채워진달까요? 인연이란 것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콩달콩, 오늘처럼 내일도

아내 유경은 씨 역시 남편의 진중한 면에 반했다며 평소 믿음직한 모습 뒤에 감춰진 의외의 순수성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다. 결혼 무렵 한동안 그의 가방에는 아내에게 프러포즈할 반지가 항상 담겨 있었다. 갑자기 유람선을 타러 가자고도 해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미 눈치챈던 아내 유경은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남편과 영화도 자주 보는 편인데, 스크린으로만 봤던 이야기를 오늘 무대로 직접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서로 노력하면서 즐겁고 예쁜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막 신혼 재미에 푹 빠진 두 사람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것 같았다.

I Dreamed a Dream

극 중 코제트와 마리우스처럼 못뚝했던 20대 초반 무렵 교회에서 만난 최지민 주임 부부는 벌써 20개월이 넘는 아들 하늘 군과 뱃속의 '예비' 동생 담비 양을 직접 함께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결혼 3년 차 부부다. 최 주임은 아내 오지은 씨를 향해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작은 공연 선물로 대신했다. "영화 말고 이런 공연장 나들이는 첫째 낳고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만삭인 채로 하늘이까지 돌보느라 고생 많은 아내에게 늘 고마웠는데 이렇게 함께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달콤한 꿈, 아름다운 결실

판틴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장발장의 도움으로 딸 코제트가 그 삶과 아름다운 사랑을 대신 살아냈듯 아내 오지은 씨에게도 남편 최 주임과 함께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은 삶의 선물과도 같았다. "오래 사귀는 동안 항상 못 박았거든요, 서른 전에 꼭 결혼할 거라고요. 남편이 군대 장교로 가 있던 3년 동안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함께해도 좋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멋지게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에 골인했죠." 어여쁜 담비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은 이들 부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히 손을 맞잡았다.

채권관리1부



2

대한민국 식도락 1번지, 명동

수요일에만 미식가가 될 수는 없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에서부터 동료들과 즐기는 한잔, 쇼핑 중 가볍게 맛보는 간식까지. 수많은 음식점들의 분점이 있는 곳이자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다양각색의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명동으로 떠나 보자.

하동관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명사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한 고풍의 명가.
A. 중구 명동1가 10-4 T. 02-776-5656

하라도너츠

방부제와 보존료를 하나도 안 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맛
A. 중구 명동7길 20 T. 02-773-3780

금강섞어찌개

오징어, 돼지고기, 고추, 배추를 넣어 함께 끓여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
A. 중구 명동7가길 20-8 T. 02-778-6625

명동돈가스

1983년 문을 열어 33년간 명동의 돈가스 맛을 책임지고 있는 곳.
A. 중구 명동3길 8 T. 02-775-5300

카카오그린

'로하스'를 콘셉트로 하는 초콜릿 & 디지털 카페로 진한 초코빙수가 유명.
A. 중구 명동8길 17 T. 02-3789-3102

비폴로

가격 대비 뛰어난 요리를 만날 수 있는 벽돌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A. 중구 명동10길 7-3 T. 02-756-0908

츠루하시 후게츠

오사카에서 시작해 일본에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오키노미야키 전문점의 한국 분점.
A. 중구 명동8길 21-5 T. 02-3789-5920

가무

40년 넘도록 정통 비엔나커피 맛을 지켜온 명동 카페의 터줏대감.
A. 중구 명동4길 16 T. 02-776-3141

관첸루(옛 중국대사관 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지에 가까운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A. 중구 명동2가 83-1 일대

영양센터

1962년부터 명동을 지키고 있는 전기구이 통닭의 원조집.
A. 중구 명동2길 52 대용빌딩 T. 02-776-2015

명동할매낙지

명동에 숨은 또 하나의 명가. 30년, 40년도 아닌 무려 60년 전통!
A. 중구 명동8길 35-1 T. 02-757-3353



4

남산1호터널입구

추울수록 속이 알차고 맛이 풍부해지는 굴은 겨울철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으뜸 보양식이다. 우리나라 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영 굴은 영양이 풍부하고 독특한 향과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 하루에 1리터의 바닷물을 마시고 그 속의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청정해역의 맛과 영양을 가득 담고 있다. 입안 가득 겨울을 느끼는 데 이만한 별미가 또 있을까?

겨울 바다의 진미, 굴



남자는 여자를 위해! 여자는 남자를 위해!

우리나라 최대 굴 산지 통영굴수협에서 한동안 내세우던 표어다. 남녀 몸에 두루 좋고, 맛은 더 좋은 굴이 제철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 전국 굴 생산량의 70퍼센트는 통영수협을 통해 거래된다.

굴을 꼭 겨울에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더운 계절에 굴을 먹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수온이 올라가면 상하기 쉽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위험성이 있어서다. 흔히 알파벳 'R'자가 들어가지 않은 달(5~8월)에는 굴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굴이 죽으면 자기소화가 일어나 맛, 냄새, 조직감 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끔 적 싱싱한 굴을 선택해서 빨리 먹는 편이 좋다. 부득이하게 굴을 저장해야 할 때는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에 얼려 놓았다가 소금물에 담가 해동하는 것을 권한다. 굴을 씻을 때는 소금물로 하는 것이 좋는데 이는 삼투압 현상으로 굴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고 향미성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굴과 함께 먹을 때 피할 음식은 감이다. 감에는 탄닌 성분이 많은데 탄닌은 철과 반응해서 탄닌산철이라는 물질로 결합되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 반면에 굴에는 섬유소가 없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영양적으로 보완된다. 대표적인 것이 김장을 담글 때 절인 배추 잎에 굴이 들어간 김치속을 싸먹는 것이다. 또한 레몬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 성분은 철분 흡수를 촉진하므로 생굴은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좋다.



굴밥

무는 채 썰고 버섯, 부추 등 채소를 먹기 알맞은 크기로 잘라 둔다. 굴은 소금을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씻어 채에 발여 둔다. 돌솥이나 냄비에 불린 쌀을 넣고,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90퍼센트 정도의 양으로 밥을(다시국물)을 부은 다음 무채를 올린 뒤 밥을 짓는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5분, 약불에서 15분쯤 끓이면 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버섯과 굴을 골고루 올리고 5분쯤 뜸을 들인다. 여기에 부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에 비벼 먹는다.



oyster Rockefeller 오이스터 록펠러

뉴욕 굴 요리 전문점에서 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1~2위를 다투는 음식. 1890년대 미국 뉴올리언스 주에서 처음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진 이 요리는 그 맛과 풍미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1933년 대공황 때 미국인 4만 명을 고용해 록펠러 센터를 세운 존 록펠러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굴의 반쪽 껍질 위에 채 썬 시금치, 버터, 빵가루와 양념을 얹은 다음, 새우구이를 할 때처럼 바닥에 소금을 깔아 껍질을 고정시킨 뒤 석쇠 또는 오븐에 굽는다.

테마가 있는 문화정보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의 삶이 무미건조했다면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책 한 권이라도 좋고, 근사한 공연 한 편도 괜찮다. 새로운 한 해를 풍요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문화 나들이를 소개한다.



Music

2016년과의 '만남' - 신년음악회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2016. 1. 20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과 월드 발레 스타들이 펼치는 신년음악회가 1월 2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는 1990년 지휘자 산드로 쿠렐로가 설립했으며 비엔나의 전통왈츠, 포크댄스, 유럽 정상의 성악가가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 공연을 선보인다.

한·오 수교 124주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6. 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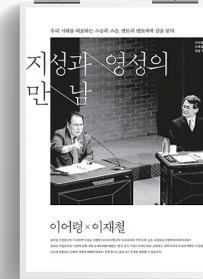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수교 124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1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박상현의 지휘로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김동규, 류정필, 우정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와 7080 포크송 가수 김세환이 노래한다.

함신익 & 심포니송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
2016. 1. 16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을 찾아가는 동시에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품격 있는 음악을 선보여 음악계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함신익과 심포니송이 2016 신년음악회로 대중과 만난다. 탄탄한 연주력을 갖춘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존 키무라 파커의 힘 있는 연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마포신년음악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2016. 1. 14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장사익, 지휘자 박상현의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천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하피데이 앙상블, 모던과 고전의 경계를 뛰어넘는 와이즈 발레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마포 신년음악회가 1월 14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모두가 행복한 2016년을 모토로 아름다운 무대를 선출한다.



Book

책을 통해 만나는 세상

미술과 문학의 만남
강경호
에코미디어

미술작품이 시인들에게 어떻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있으며, 심미적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내밀하게 알려며 독자들이 미술작품과 문학작품을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던 작가들의 삶이 어떤 미술작품을 창작했는지, 그들이 살아온 삶과 창작과정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만남의 철학
김상봉·고명섭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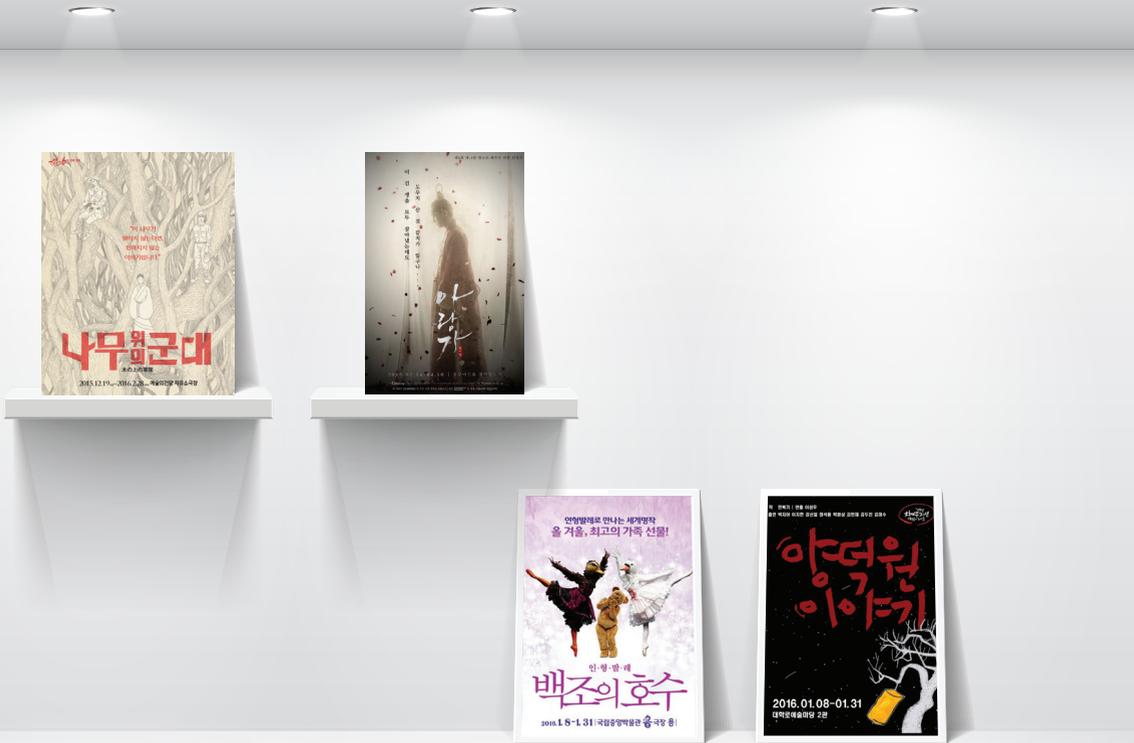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와 한겨레 신문 고명섭 논설위원의 '철학 대담'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고명섭은 김교수의 저서는 물론 논문들까지 두세 차례 집중 검토하고,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대담을 이끌어간다. 큰 틀에서 과연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 땅에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논쟁적, 분석적으로 풀어냈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아령·이재철
홍성사

지성의 한계를 깨달은 뒤 영성이 묻어오는 지성으로 거듭난 이아령 교수, 삶의 현장에서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실천해 온 이재철 목사가 만나 삶과 가족에서부터 문화와 종교 등을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운다. 신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비롯해 사회 각 영역에 산재된 구체적 질문에 이르기까지, 길을 잃고 서성이는 이들에게 지침과 위로를 준다.

삶을 바꾼 만남
정민
문학동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 만남이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정약용의 18년 유배 기간 동안 함께한 제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스승을 섬겼던 황상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감동적이다. 일관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한결같이 받아들이는 제자,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Musical 무대, 그 설렘과의 만남

나무 위의 군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2015. 12. 19~2016. 2. 28

'연극열전 6'의 개막 작품이다. 전쟁이 끝난 사실을 모른 채 2년 동안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두 병사의 실화를 무대 위에서 그려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의 모순과 '전쟁 중, 나무 위'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임을,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이 진정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랑가

총무아트홀 중극장
2016. 2. 14~2016. 4. 10

제4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 작품 선정작이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도미설화'를 바탕으로, 백제 비운의 왕 개로와 그의 충직한 신하 도미, 도미의 아내 아랑, 고구려 첩자 도림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픽션 사극 뮤지컬이다. 판소리와 뮤지컬 넘버를 극에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여 서양과 동양 음악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 하였다.

백조의 호수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2016. 1. 8~2016. 1. 31

엄마들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공연 1위에 선정된 가족공연이다.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동화 같은 무대와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곰 인형 두두를 비롯해 백조, 여우, 토끼, 다람쥐 등 친근한 동물 친구들이 총 집합해 각 동물의 특징을 살린 기발하고 아름다운 안무와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들의 창작곡이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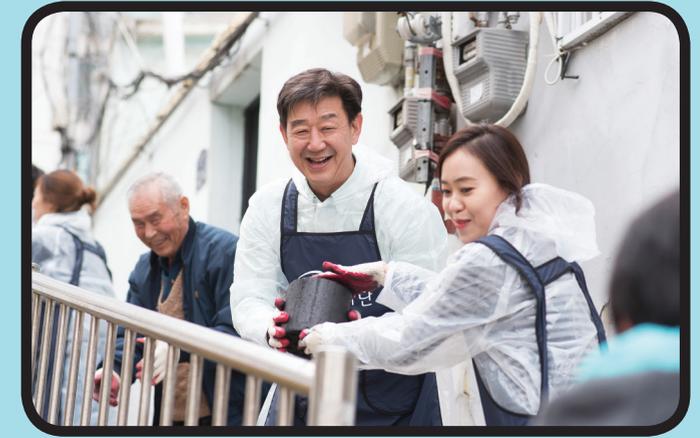
양덕원 이야기

대학교예술마당 2관
2016. 1. 8~2016. 1. 31

사회문제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과 비판의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관객들 모두에게 내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극단 '차이무'의 창단 20주년 기념 작품이다. 있는 그대로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낯은 지갑 속에서 찾아낸 옛날 사진을 들여다 보듯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다른 그림 찾기

아래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위쪽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3월 4일(금)까지 홍보부 김원준 주임 (karlos7979@sbsi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해서 열 분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희망+>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첫 호의 얼굴인 표지를 아름답게 장식해주신 김지윤 사원과 진행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인사부 '부끄부끄' 안호중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촬영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보시스템실 문휘범 대리님과 꽃미남 김동민 사원, SBI 소통이끄미 '주니어보드'의 김덕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분들, SBI 새 얼굴 아홉 분, 수원지점 홍영경 지점장님과 직원 여러분, 캘리그라피 체험에 참여해주신 김수정 과장님 외 세 분, 준법감시부 정종덕 대리님과 채권관리1부 최지민 주임님 부부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원승이해에는 <희망+>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더 큰 희망의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홍보부 김원준 주임 -